ECONOMIC FOCUS

2026. 4. 30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4월 FOMC의 시사점

"In a good place"; 파월, 연준 이사로 남을 것임을 시사

-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 시, 현 정책 금리는 "상황을 지켜보는데 매우 좋은 위치". 여전히 12명 중 9명(파월 포함)은 다음 금리 방향이 인하일 것이라는 데 동의
- 파월 의장, 연준 감사 관련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 워시 지명자는 예정대로 5월 15일 Fed 의장 취임 가능성 높아

예상대로 4월 FOMC 및 파월 의장 기자 회견은 3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Wait and See" 모드를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파월 의장은 현 정책 금리 수준을 중립 범위의 상단으로 평가하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이란 사태 관련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을 감안할 때, "통화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하였다.

- **Wait and See 유지 강조:** 현재 FOMC 참여자들 대부분의 강한 컨센서스는 이란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dual mandate의 양방향 리스크, 즉, 물가의 상방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정책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지표들을 확인/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 파월 의장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
- **여전히 FOMC 대다수는 "Easing bias"에 동의:** 파월 의장 임기 마지막 FOMC에서 4명의 반대 의견이 나옴. 이는 지난 1992년 10월 이후 최다 반대 의견임. Miran 이사는 예상대로 25bp 인하를 주장한 반면, Hammack, Kashkari, Logan 3명은 금리 동결에는 동의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정도와 시점을 결정하는데, 지표 흐름, 전망 변화와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는 easing bias 문구 삭제를 주장함. 파월 의장도 아무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전반적인 FOMC의 중심이 좀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인정. 여전히 12명 중 9명(파월 포함)은 다음 금리 방향이 인하일 것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향후 이란 사태의 지속 기간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
- **법정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준 이사로 남을 것:** 사실상 4월 FOMC 기자 회견의 절반 이상은 향후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에 집중됨. 파월 의장은 비록 법무부 수사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연준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참고로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임. 한편, 상원 전체 표결만 남은 워시 지명자는 예정대로 5월 15일 Fed 의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는 예상 수준에 부합하며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핵심 변수는 여전히 이란 사태 관련 유가 상승의 정도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지 여부이다. 당사는 5월 중 휴전 합의 도출 이후, 점진적인 유가의 하락 안정세 전환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사태의 합의 도출이 이미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 시나리오를 벗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만약 예상과 달리, WTI 기준 90달러를 상회하는 국제유가 추세가 5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경우, ECB의 6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Fed는 9월 인하에서 동결로 전환하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8월 혹은 10월 중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고유가 추세가 하반기까지도 장기화될 경우, ECB의 9월 추가 인상, Fed의 연내 동결, 한국은행의 내년 1Q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